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전후(2018~2022년) 시장소득 및 순자산 분배 악화와 관련하여 20~30대 청년세대의 부채를 활용한 자산 보유 행태가 주목받고 있다.
-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반적인 가계소득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청년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가 두드러지며, 부채 활용도 현저하다.
- 청년세대의 경우 부채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산 증가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금융자산의 증가, 특히 전월세 보증금의 증가가 두드러져 이들 세대의 부채가 주로 보증금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전후 청년세대의 부채 활용 및 자산 보유 행태는 낮은 소득 증가, 부동산 및 전세가격 급등에 기인한 바 크며, 이들의 순자산 증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정체되거나 변동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세대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후 채무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 및 주거여건 개선 그리고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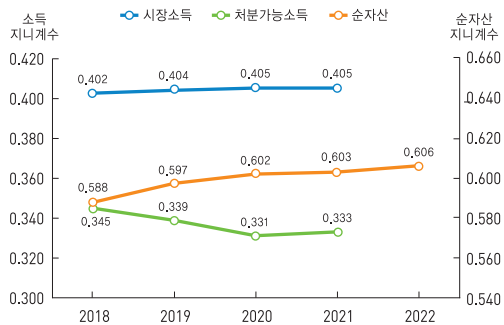
정책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의 공적 이전소득도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급등하여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보유하지 않은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감염병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계층과 산업부문이 존재해 소득과 순자산 분배 측면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V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시장소득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으며, 부의 분배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높아진 공적 소득이전 등으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분배는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이 역시 최근에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 경제·사회의 핵심 주체인 20~30대 청년세대의 경제 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유동성 확대 및 재정완화 정책으로 인해 자산가격 급등이 발생함에 따라 20~30대 청년세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는 경제·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대응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통화·금융·재정

[그림 VI-12] 소득 및 순자산 지니계수, 2018-2022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사용함.
 3)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다. 생애주기상 본격적인 경제생활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는 독립가구 형성을 위한 주거 마련과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이 중요한 재무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주택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과열 양상은 자산시장에서 소위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 '벼락거지', '오늘이 제일 싸다' 등의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형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의 부채를 활용한 자산보유 행태와 이들 세대의 소득 및 자산분배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 및 분배 추이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와 달리 특정 업종과 계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업종,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업종은 20~30대의 비중이 작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는 청년세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경제행태 및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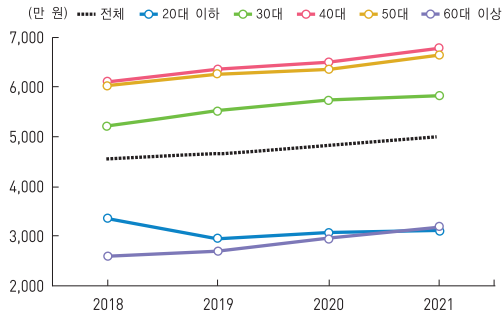
앞서 [그림 VI-12]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소득의 분배는 2018년 이후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적 이전지출의 확대로 처분가능소득의 분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가 20~30대 청년세대의 소득분배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의 소득은 2018년 대비 2021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이하의 경우 -7.4%로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들의 소득이 다소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연령대는 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공적이전 지출의 확대 등으로 가구소득이 2018년 대비 2021년 22.5%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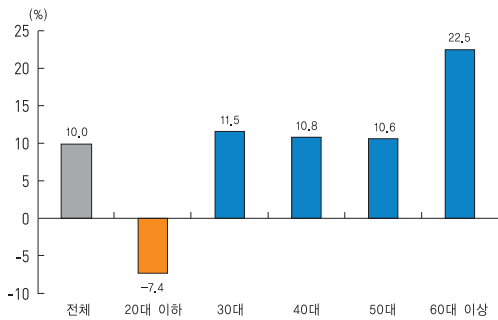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은 소득의 증가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

[그림 VI-1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2018-2021

1) 가구소득



2) 2018년 대비 2021년 소득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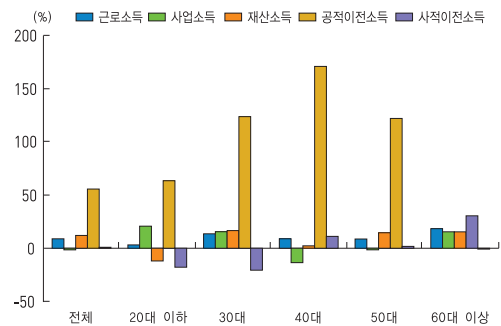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연가구소득 중위값 기준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으로 구분하여 그 증가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4]를 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업소득이 2018년 대비 2021년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2018년 대비 55.3%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재산소득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는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1/3 수준인 2.9% 증가를 나타내

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도 크고 사업소득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대비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의 재산소득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그림 VI-14] 가구주 연령집단 및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률, 2018-2021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원천별 소득은 평균값 기준임.
 3) 소득증감률은 2018년 대비 2021년 원천별 소득의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코로나19 전후 이러한 20대를 중심으로 한 낮은 소득 증가 내지 감소는 세대 간 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생애주기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40대인데 이들의 소득과 청년세대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20대 이하는 40대의 소득에 50% 수준인 반면, 30대는 보다 높은 소득으로 40대의 80% 후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근로소득의 상승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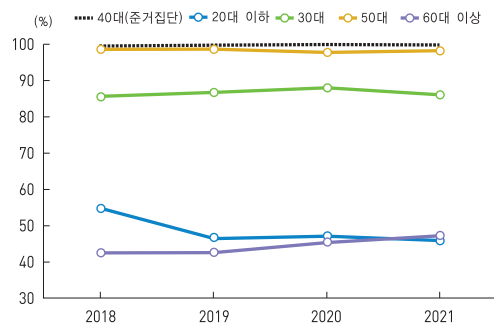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글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층 간 소득격차가 코로나19 전후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그림 VI-15]에서 연령집단 간 소득비의 변화 추이를 보면, 30대와 50대는 시간 경과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는 반면, 2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그 격차가 확

대되었으며, 60대 이상은 오히려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전후 기간을 비교해 볼 때, 20대 이하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의 소득 여건은 악화되거나 정체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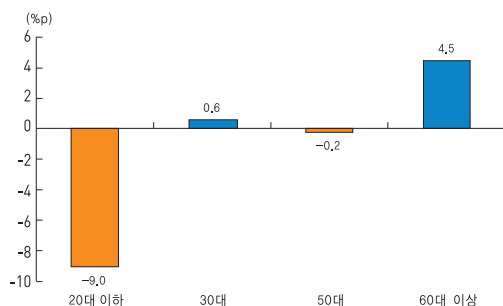
정리하면 시장소득 측면에서 소득분배 여건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이전지출 등을 통해 처분 가능소득의 분배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존의 다른 경제·사회적 충격과 달리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 충격이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들 계층의 분배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함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등은 청년세대의 부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5] 가구주 연령집단 간 소득 격차, 2018-2021

1) 연령집단 간 소득비



2) 2018년 대비 2021년 연령집단 간 소득비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연가구소득 중위값 기준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3) 연령집단 간 소득비는 최고소득 연령집단인 40대의 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소득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연령대별 가계부채 변화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20대 연령층에 집중된 소득 충격과 더불어 자산가격의 급등은 청년세대의 부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와 정체, 그리고 SNS 등의 발달로 인한 기대소비 수준의 상승,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붐과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이들 청년세대의 부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VI-16]에 제시된 연령집단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과 부채보유액의 변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20~30대 청년세대의 부채 증가세가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다. 2018~2022년 기간에 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64% 내외로 큰 변화 없이 약간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는 2018년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50.8%로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2022년에는 60.4%로 9.6%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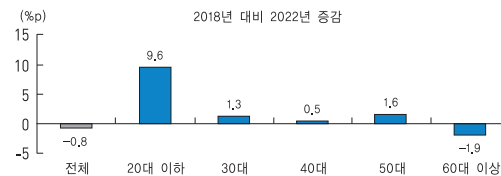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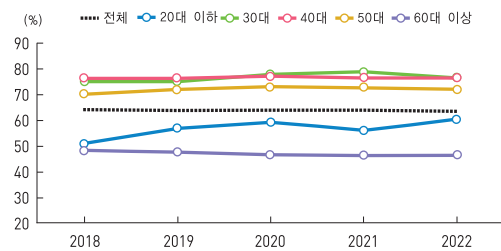
전체 가구의 부채 보유액 증가세도 전체 가계 신용의 증가를 반영하듯 2018년 대비 2022년 19.6%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는 무려 93.5% 증가하였고, 30대는 39.8%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다.

연령대별 부채 접근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 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부채보유액과 다른 연령대의 부채보유액을 비교해 부채 격차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집단 간 부채 격차의 축소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2018년 50대의 부채보유액 대비 20대의 부채보유액은 29.4%에 불과하였지만 2022년에는 46.6%로 높아져 그 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¹⁾ 30대 역시 2018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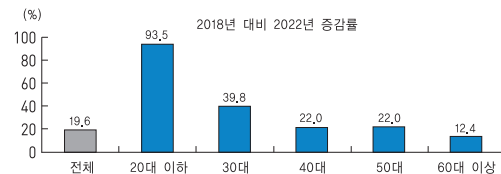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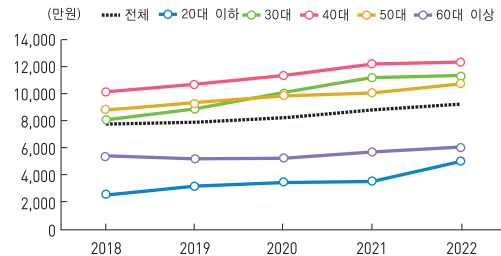
50대 부채보유액의 91.7%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05.1%로 높아져 50대보다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그림 VI-16]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및 부채 보유액, 2018~2022

1) 부채 보유 가구 비율



2) 전체 가구당 부채 보유액



1) 생애주기상 부채규모가 가장 높은 계층은 40대로 연령에 따라 N-자 형태로 나타나 40대를 기준으로 동일 분석을 수행하여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 글에서는 연령대별 순자산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순자산과 자산이 가장 정점에 있는 50대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일관된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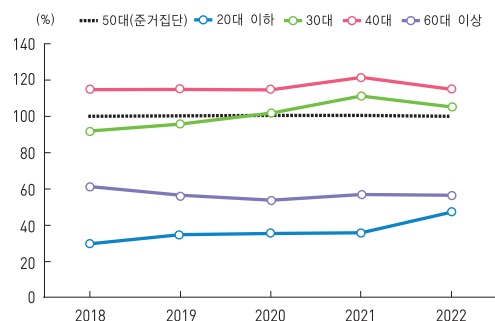
60대 이상은 61.0%에서 56.2%로 줄어들어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즉, 부채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자면, 20~30대는 부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오히려 부채 이용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이하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의 낮은 상승과 정채 그리고 사업소득 비중의 확대 및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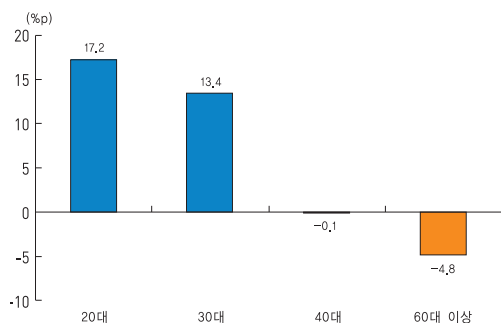
재산소득은 청년세대의 부채 활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시킨 배경 요인으로 보인다. 단순히 부채를 지는 것뿐 아니라 이들 세대의 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부채 확대가 자산 증대로 이어질 경우 보유자산의 종류와 가치의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가 보유한 부의 규모와 분배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VI-17] 가구주 연령집단 간 부채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부채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부채비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부채는 전체 가구당 부채액을 기준으로 함.
 3) 연령집단 간 부채비는 생애주기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부채 대비 해당 연령집단 부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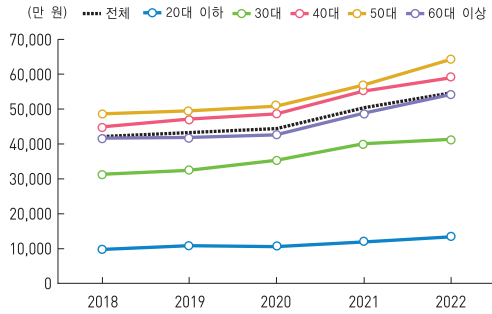
연령대별 가계자산 추이

코로나19 전후 가계부채의 증가가 높았던 만큼 이러한 부채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당 자산보유액의 변화 추이를 부채의 변화 추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그림 VI-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당 부채보유액은 2018~2022년 동안 19.6% 증가했다. 반면 [그림 V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당 자산보유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던 청년세대의 경우 높은 자산 증가를 나타냈으나 부채 증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20대 이하 36.5%, 30대 30.9% 증가).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부채 증가율보다 오히려 자산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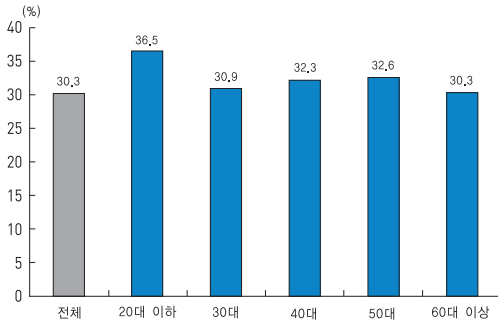
[그림 VI-19]에서 20~30대 청년세대와 자산 규모가 가장 큰 50대 간 자산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그 축소 폭

[그림 VI-18]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 2018-2022

1) 자산보유액



2) 2018년 대비 2022년 자산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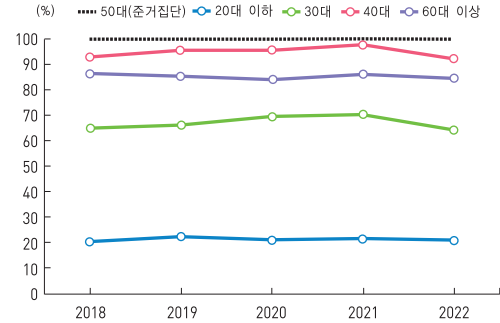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이 크지 않다. 20대 이하는 2018년 대비 2022년 자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그 격차가 가장 크게 축소되었다. 30대는 2018년 50대 대비 65.0%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64.2%로 나타나 다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산 격차의 축소는 부채의 접근성 개선에 비해 그리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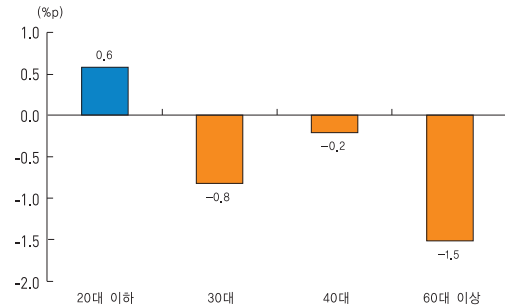
가계자산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과 저축 등의 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림 VI-20]에서

[그림 VI-19] 가구주 연령집단 간 자산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자산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자산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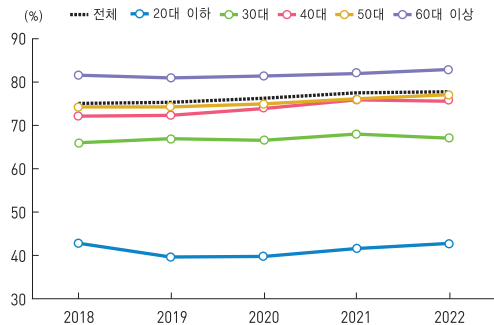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연령집단 간 자산비는 생애주기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자산보유액 대비 해당 연령집단 자산보유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2018년 75.4%에서 2022년에는 77.9%까지 상승하였다. 자산 구성에 있어 부동산 편중 현상이 코로나19 전후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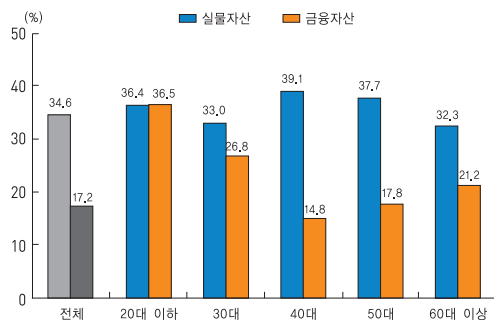
전체 가구의 경우 실물자산은 2018년 대비 2022년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그보다는 낮은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그림 VI-20]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구성의 변화, 2018-2022

1)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



2) 자산유형별 2018년 대비 2022년 증감률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실물자산은 부동산자산(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납입액)과 기타실물자산(자동차, 기타)을 포함.

4) 금융자산은 저축액(적립·예치식 저축, 기타 저축)과 현가주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간의 증가율 차이가 미미한 반면, 40~50대는 실물자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자산 증가가 대체로 실물자산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물자산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다도 20대를 제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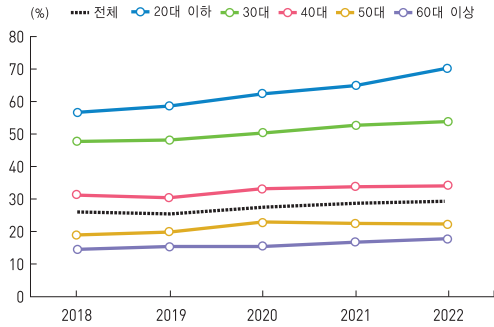
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아진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거나 보유 비중이 시기에 따라 낮아졌다.

금융자산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실물자산 보유가 낮은 청년세대의 금융자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36.5%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30대는 26.8% 증가해 그다음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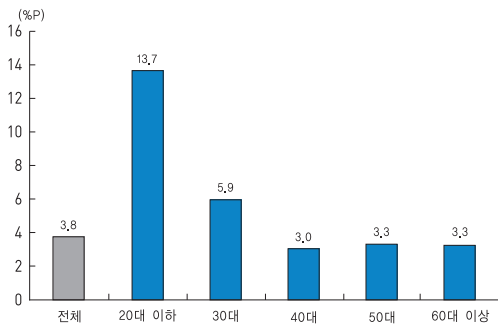
20대 이하의 경우 소득이 동 시기에 오히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부채의 빠른 증가와 관련 있어 보인다. 가구의 금융자산은 저축에 해당되는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집계한 것이다. [그림 V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5.7%에서 2022년 29.5%로 3.8%p 상승하였다. 이는 분석 기간 중 높아진 전세가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아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20~30대가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8년의 경우 20대 이하는 56.4%로 모든 연령대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47.8%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전월세 보증금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15%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하였다. 2022년의 경우 20대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 비중은 70.1%로 2018년 대비 13.7%p 상승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그림 VI-21] 가구주 연령집단별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 2018-2022

1)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



2) 2018년 대비 2022년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의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금융자산은 저축액(적립·예치식 저축, 기타 저축)과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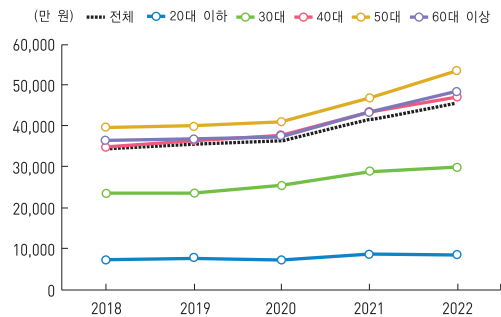
연령대별 순자산 추이 및 재무건전성

실제 가계의 부를 나타내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다. [그림 VI-22]에서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2018년 대비 2022년 가장 낮은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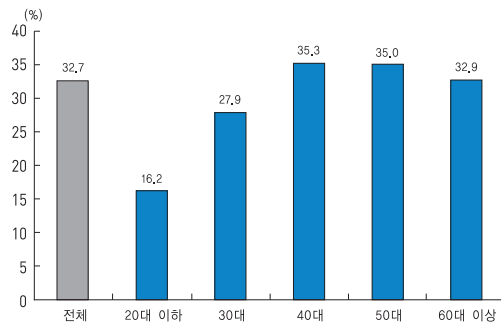
증가를 나타냈다. 20대 이하는 코로나19 전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부채 보유를 통해 자산도 함께 늘려 대차대조표가 확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낮은 순자산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가구의 순자산은 32.7% 증가한 반면, 20~30대 청년세대 중 30대는 27.9%, 20대 이하는 1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자산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 40~50대는 이 기간에 높은 순자산 증가를 보여

[그림 VI-22] 가구주 연령집단별 순자산, 2018-2022

1) 순자산



2) 2018년 대비 2022년 순자산 증감률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순자산은 전체 가구당 순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와 높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부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순자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40대의 경우 대부분 기간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30대는 한번 그리고 20대 이하는 두 차례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높은 순자산 증가세를 보였다. 다른 세대와 달리 20대 이하의 순자산은 한해 증가한 후 한해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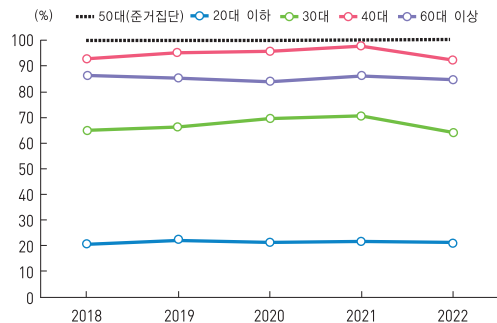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순자산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Ω -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고 부유한 연령대는 50대이고 다음이 60대, 그리고 40대가 근소하게 그 뒤를 잇고 있다. 30대와 20대 이하는 가장 낮은 순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VI-23]에서 순자산이 가장 높은 50대와 20~30대 청년세대 간 순자산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격차가 오히려 커졌는데, 이 기간 20대 이하는 순자산비가 2.6%p 하락했으며, 30대는 3.1%p 하락해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자산 가격 하락 이전인 2021년을 2018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2022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1년간의 추세를 보면 순자산 격차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부동산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40대와 30대의 순자산 증가에 기인한다. 즉 20대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와 최고 순자산 계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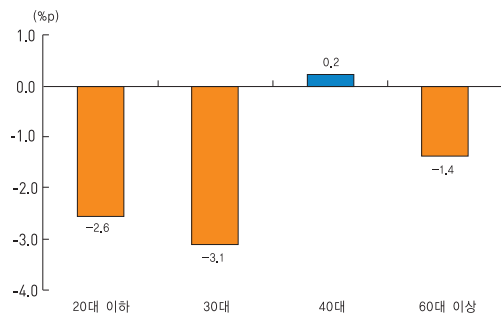
50대 간 순자산 격차는 부채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23] 가구주 연령집단 간 순자산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순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는 생애주기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순자산보유액 대비 해당 연령집단 순자산보유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전반적으로 20~30대 청년세대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보유자산이 주로 임대보증금 위주로 증가하여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지 못해 순자산이 부

채의 증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순자산 불평등을 지속 증가시키는 배경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년세대의 부채가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역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맺음말

코로나19 전후 20대의 소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20~30대 청년세대의 독립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수요가 커짐에 따라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채의 증가와 함께 금융자산도 증가하였지만, 이는 주로 전월세 보증금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하여도 40~50대와 달리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그나마 투자된 자산도 변동성이 높은 주식,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이다 보니 보유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보유 부채가 소득 증가나 순자산 증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20~30대 청년세대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으로 짐작된다. 즉 청년세대는 코로나19 전후 상대적으로 정체된 근로소득과 낮아진 금리 하에 부채를 활용한 주거 서비스 이용과 위험도 높은 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순자산은 다른 연령층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의 불평등이 코로나19 전후 악화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전후 20~30대 청년세대는 부채 활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태이지만, 이러한 이들의 높은 부채는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와 주택가격의 불안정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향후 고령화 대응에 있어 핵심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들 세대에게 필요한 안정적이고도 부담가능한 주거 서비스의 제공 역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정이 대출을 통한 주거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졌으므로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을 통해 부담가능한 주거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높아진 부채와 낮은 소득 등으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역시 사회 안전판으로 필요하다.